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하나님의 사랑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 1월 25일까지
캠퍼스, 비전교회, 기도처 등 온-누리가 예배당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고전15:10).”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가 내일(16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10개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일산, 복누리 비전센터, 광명 하안동에 위치한 푸른솔 태권도장 등지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CGNTV는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서빙고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실황을 위성 중계한다.

새벽기도회 주강사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나선다. 이재훈 목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캠퍼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말씀을 선포한다. 이외에도 박종길, 반태효, 이훈, 이재환 목사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새벽기도회에는 특별한 강사들이 초청된다. 17일(화) 로봇다리 세진이(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비롯해 매주 토요일마다 이영표(전 축구선수), 김영길(한동대 총장), 이지선(〈지선아 사랑해〉저자), 이성미(개그우먼) 등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눈다.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누리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이촌역에서 서빙고 캠퍼스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첫차는 오전 4시 40분이며, 예배 후 오전 7시까지 4대의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CGN, 시니어 선교단원 모집

캐럴 감상 유튜브도 오픈

CGNTV가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시니어 선교단원을 모집한다.

‘CGN 청춘선교단’ 이름으로 활동하는 시니어 선교단은 협력기관에서 10주 동안 선교훈련을 받고 국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된다. 활동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상 교인이어야 한다. 1월 4일까지 CGNTV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thinkmall@naver.com)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75-9445/9514

한편, 다양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감상할 수 있는 유튜브 ‘CGNTV Praise’가 오픈했다. 온누리교회 예배, 집회, 콘서트 등에서 성탄 관련 음악만을 모았다. ‘Jesus loves me’(김조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박기영), ‘징글벨’(소울싱어즈), ‘O Holy Night’(성악가 김동규), ‘White Christmas’(나무엔), ‘Let it rain’(신보라, 헤리티지) 등 25여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유튜브 어플 또는 구글 검색창에서 ‘CGNTV Praise’를 검색하면 된다.

문의: 02-3275-9441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4년 상반기 공동체 주차봉사 시간 및 지역(2014.01.12 ~ 07.06)

지역별 시간	봉사지역	동작대교 (교회 뒷편)	금강병원 반도아파트	강북삼거리 및 주변	교회내, 정문사거리, 황단보도
1부 06:00~09:00	서대문				
2부 09:00~12:00	가정사역		08:30~11:30 김포	08:30~11:30 일산	08:30~11:30 동대문중앙
3부 12:00~15:00	성북		11:30~14:30 이촌	11:30~14:30 복누리	11:30~14:30 노원
4부 15:00~18:00	강촌				14:30~17:30 강서
5부 18:00~21:00	관악금천				17:30~20:30 성동광진

모든 공동체 봉사자는 주차사역팀의 협조 요청에 우선적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찾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오는 성도, 선진주차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의 숨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습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며 받은 은혜, 사진, 어록, 칭찬할 성도, 새해소망 등을 기다립니다.

알려주실 곳: 02-3215-3193

onnuriweekly@gmail.com

사 고 / 온누리신문 기자모집

분야: 취재 및 편집기자(전임)
모집인원: 3명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서, 문서 사역에 헌신한 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기명기사
(one@onnuri.org)
제출기한: 12월 17일까지
문의: 김남원 부장
(02-3215-3193)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특집 8-9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가랴에 전해진 좋은 소식

선택받은 가정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뤄집니다.

눅 1:5~17

사람들은 언제나 제도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아기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가정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가정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정은 친척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서 세례요한이 출생했고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두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세례요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6절).

그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죄인 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간의 죄성을 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고 경건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불경건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교훈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

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불경건하지만 자녀들은 경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게시가 희귀한 영적 암흑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 시대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내가 네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습 3:12)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게시가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게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이나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게시가 임하지 않았던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된 세례요한의 탄생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가정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와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사 40:3~4).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소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의 탄생이 그가 태어나기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서도 세례요한의 출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와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아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말 4:5~6).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출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부모와 자식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는 세례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즈음 아이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무슨 옷을 입힐지, 어떤 집에 살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로 와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의 출생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출생은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의롭고 경건했지만 고통과 수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눅 1:7).

오늘날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수치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매우 큰 고통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라면 어느 시대든지 고통과 수치가 없어야 하는데 그들이 고통과 수치 속에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과 은총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고통과 수치로 여기는 일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을 통해 오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고통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창대케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삭도 아이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유심히 보면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를 잘 낳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팠습니까. 라헬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곱의 삼대에 걸친 공통적인 문제는 아이를 힘들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기도를 통해 아이를 선물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잘 낳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받은 아이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문제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통 이면에 숨겨진 섭리와 계획

아이를 어렵게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이었습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를 경험했습니까. 한나의 가정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가정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바로 그런 고통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나의 고통은 한 가정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매우 상징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이 깊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경건한 가정의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이 깊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 된 것입니다.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세례요한의 가정에도 고통이 임했습니다.

고통이 기도로, 기도가 역사로

의롭고 경건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응답하셨고 엘리사벳에게서 세례요한이 탄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시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던 영적인 침묵기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가정의 고통은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을 출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가정의 고통에는 다른 가정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가정의 고통이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롭고 경건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은 인간의 죄성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 사가랴는 제사

라나 사가랴는 이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18절).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12~13절).

응답되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는데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천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하고,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신의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가랴의 입장이었다면 믿었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마리아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가 대조됩니다.

놀라운 역사 체험하는 의로운 가정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때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좋아 보이는 일들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같은 고통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답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두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뤄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보내실 때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을 주셨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가정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온누리교회에 속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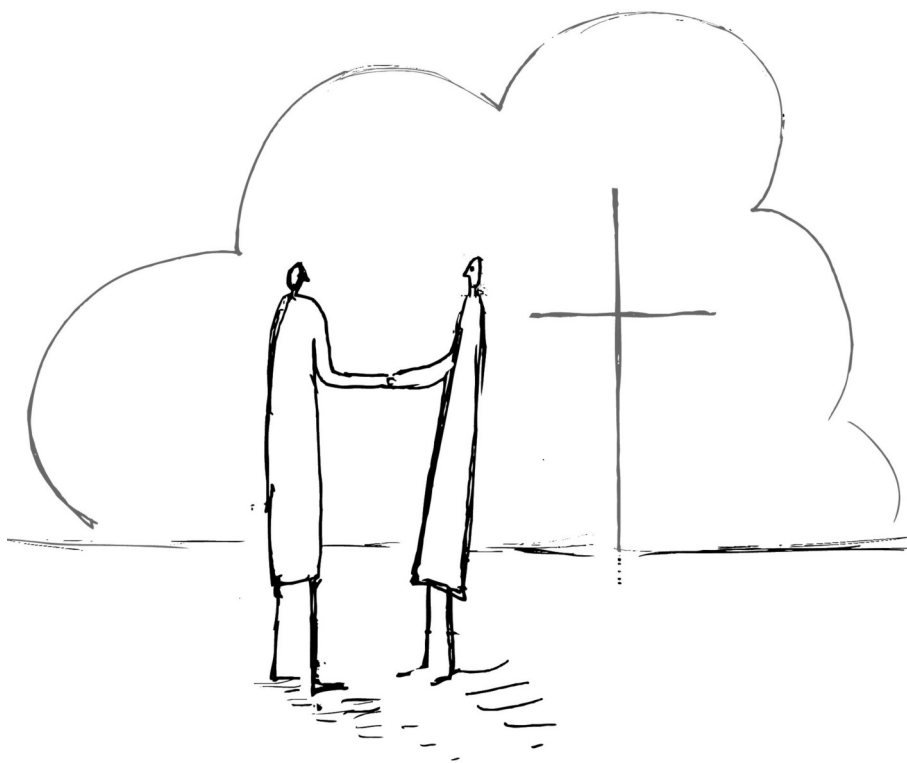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 년에 두 번 한 주씩 당번제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아무에게 시키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씩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인생에서 한번 올까 말까한 일입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러 갈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려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해준 바로 그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문제는 기도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대로 응답되면 의심을 합니다. 이 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베드로를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마포공동체 특별한 세례식

12월 4일(수) 저녁 7시30분 서빙고 성전 본당.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세례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목양예배를 통해 진행된 세례식은 지난 11월 3일 마포공동체가 준비한 맞춤전도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10명의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마포공동체는 맞춤전도집회가 끝난 후 영접의사를 밝힌 30명의 대상자들을 서빙고 신동아쇼핑 건물로 초대해 2주 동안 세례식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중 13명이 양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날 세례식을 통하여 10명의 대상자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

반태효 목사는 “각 공동체에서 맞춤전도집회를 했지만 이처럼 후속



마포공동체 맞춤전도집회 결신자 10명이 지난 4일 세례를 받았다.

양육을 잘 거쳐 세례식을 거행한 공동체는 마포가 처음”이라고 축복하며 세례를 진행했다.

마포공동체를 담당 하원희 목사는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도 초청하신 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

속 도울 예정”이라면서 “맞춤전도를 통해 영혼의 결실을 맺는 수확도 있었고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고 밝혔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CCF 전도집회, 53명 결신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CEO포럼(CCF) 전도집회 중 이재훈 목사가 참석자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했다.

초겨울 날씨로 찬바람이 불던 지난 주일(8일), CCF에서 주최한 전도집회 ‘더 멋진 당신’ 현장은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집회는 주영훈과 이성혜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의 무대와 국악연주가 이슬기의 공연으로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했다.

2부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신나는 난타공연과 배재철 성악가의 ‘주 예수보다 더’와 ‘Amazing Grace’ 찬송은 듣는 이의 영혼을 울렸다. 이어 CCF의 일원인 이인용 장로(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와 유중근 권사(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재건 장로

(CGNTV대표)가 영상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간증을 전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로봇다리 세진이(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와 그를 길러낸 어머니의 순서였다. 두 다리가 없고 불편한 오른손을 가지고 로키산맥을 오르고 마라톤을 완주하며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기까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며 세진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또 아이를 입양해 기도로 키운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에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 참석자는 “세진이의 간증에 눈물이 났다”면서 “조청해준 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교회 나갈 것이다”고 고백했다. 이날 515명의 참석자 중 53명이 결신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받은 은혜 전하겠습니다”

은퇴장로 7인의 아름다운 뒷모습

지난주일(8일) 양재온누리 3부 예배에서 장로는퇴직이 거행됐다. 7명의 장로는 시무장로에서 ‘사역장로’라는 새로운 명칭이 주어지면서 영적인 사역과 헌신으로 장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김종건 장로는 대표인사에서 “온누리에서 받은 은혜를 작은 미자립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격려하며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8일(주일)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온 7명의 장로가 은퇴식을 했다.

〈은퇴장로명단〉

김국용, 김원중, 김종건, 박병익, 서찬교, 이용경, 임광택

성경일독학교 종강

지난 6일(금) 양재 여성사역의 성경일독학교가 종강했다. 구약을 중심으로 진행된 성경일독학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150여 명이 수료한 가운데 은혜의 고백이 넘쳐났다.

스쿨을 통해 성경책을 처음 읽게 됐다는 조해정 성도는 “성경 속 인물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큐티와 묵상 하는 법을 알고자 등록했다는 최우연 성도는 “성경이 더 이상 책이 아닌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라며 “이제 믿지 않는 두 아들과 시댁어른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전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 조은실 기자

묵상과 사랑나눔학교 종강

“묵상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지난 12일 〈예수님의 생애 묵상학교〉의 마지막 강의가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모임은 기도과 강의, 질의응답, 간증-이미징 집사, 임현숙 권사, 식사 및 교제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유재경 목사(영락교회)는 ‘일상 속에서 묵상기도하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서 “기도가 삶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묵상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과 일상 속에서 묵상기도를 지속하는 방법 그리고 큐티를 통해 기도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묵상학교에 참석한 70여 명의 성도들은 10주 동안 복음서 묵상과, 침묵기도, 본당 실습과 과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종실 목사는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검증된 영성훈련학교 과정이나 추천 도서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거룩한 묵상훈련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묵상학교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신생아를 위해 예쁜 티모자를 만들며 열방에 있는 아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조유진 기자

뗏배잉 군의 행복한 겨울나기

서빙고 무릎기도, 미안마 환아 후원

지난 12월 5일(목)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미안마에서 온 소년 뗏배잉(10세)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서빙고 무릎선교기도학교(이하 무릎기도) 측은 이 소년의 구순구개열 수술과 미안마의 영혼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모아 장철호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런 후원과기도 덕분에 뗏배잉 군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중에 있다.

무릎기도 중보기도자들은 수술이 끝난 후에도 매일 오전 오후, 조별로 병원을 방문해 기도를 계속 이어갔으며, 간식과 장난감, 학용품, 옷 등도 지원했다. 그 결과 12월 9일

(월)에는 뗏배잉과 그의 삼촌 무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뗏배잉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장래희망”이라고 고백했고 중보자들은 뗏배잉 군이 미안마와 그 민족을 주님께 드리는 훌륭한 리더로 자라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무릎기도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군선교 사역팀 모집〉

대상: 군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으며, 군선교에 헌신 및 동역하고자 하는 성도

역할: 사역팀원으로 매주 기도모임 섬김 및 전도집회, 진중세례 지원(사역팀 임원직분을 맡아주실 분도 모집합니다.)

제출: 간단한 자기소개서(교회홈페이지 알람판에서 다운로드) onnurigospel@naver.com 으로 제출

문의: 김준용 팀장 010-3787-1958 / 김연선 간사 02-3215-3214

해외비전교회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지 가라”

우에다

5일, 이취임예배

우에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5일 담당 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우에다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에는 장재운 목사(동경 온누리교회), 도육환 목사(이천선교), 이천선교 소속 장로, 현지교회 목회자, 성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신수 비전네트워크 목사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설교, 격려사, 안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9년 동안 우에다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야마구찌 키요타카牧사는 눈물로 이임사를 전했고, 취임하는 유성근 선교사(목사)는 일본어로 취임사를 했다. 이날 설교에서 도육환 목사는



“목사와 선교사는 사명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에다 온누리교회는 해외비전교회인 동시에 TIM JAPAN 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다.

/ 허원희 목사

“하나님 사랑 전하는 공동체”

교 토

창립 3주년 감사예배

지난달 24일 교토 온누리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역사적으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토에서 Acts29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창립한 교토 온누리교회는 일본에 일곱 번째로 세워진 비전교회이다. 3주년 감사예배는 청년부들의 위십댄스

와 스킷드라마, 3주년 기념 영상 상영,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교를 한 박종길 목사는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동경 온누리교회 담당 장재운 목사도 참석해 교토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창립3



주년을 축하했다. 교토 온누리교회 담당 야마나가 목사는 “앞으로도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오는 8월 새예배당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 조수정 사모

“새 성전을 새 영혼들로 채우라”

시드니

전도집회 The Propose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전도집회 ‘The Propose’를 열었다.

지난달 16일 80명의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한 전도집회는 공연, 메시지, 결신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3명이 결신하고 31명이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번 전도집회는 시드니 교민을 대상으로 한 첫 전도집회라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전도사 역본부와 CGNTV 출연자(강석우, 윤유선, 이무송, 노사연) 등이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교회행사에서 선보인 문화공연이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도대상자들은 교회에 대해 가졌



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기훈 목사(시드니 온누리교회)는 “새성전을 새로운 영혼들로 채우라는 사명을 깨닫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전도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대상으로 12월 21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22일(주일)에 세례를 베풀 예정이다. / 유동우 통신원

〈우에다이취임예배〉

일자: 2013년 12월 5일
이임: 야마구찌 키요타카 목사
취임: 유성근 선교사(목사)
설교: 도육환 목사

〈교토창립3주년예배〉

일자: 2013년 11월 24일
설교: 박종길 목사

〈오사카 임직예배〉

일자: 2013년 12월 6일
임직자: 안수집사 11명
(남자 4명, 여자 7명)

〈벤쿠버 임직예배〉

일자: 2013년 12월 15일
임직자: 15명 명예권사 1명, 권사 1명, 안수집사 13명(남 4, 여 9명)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옷감 염색과 자주색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행 16:14).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마 드로아에서 있었던 마케도냐 환상일 것이다. 동쪽의 소아시아로 향하려던 바울은 성령의 개입으로 결국 서쪽 유럽으로 향하게 된다. 발칸 반도 동부에 있는 빌립보 성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성서시대의 자주색 염색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는 현대의 성경 독자들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속에 감춰진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란 말만 듣고도 즉시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염색 없이 자연적인 섬유 색깔의 옷을 입었지만 대다수의 평민들은 동물, 식물, 광물 등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염색 재료를 이용해 옷감에 염색을 했다. 하지만 아주 유일하게 제외되는 색깔이 ‘자주색’ 계열의 염색이었다.

자주색 염료는 ‘뿔고둥’으로 불리는 달팽이의 하부 기관지선에서 극히 소량 얻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두로가 위치한 지중해 해변에서만 잡을 수 있었다. 50cm의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려면 1만 마리의 뿔고둥을 잡아야 했던 만큼 자색 옷감은 귀했다. 뿔고둥은 대합조개와 함께 다녔는데, 선에서 분비되는 염료만 빼내고 다시 바다에 놓아주곤 했다.

비싼 가격과 공정 때문에 ‘자주색’은 왕족이나 귀족을 의미하는 색깔이었다. ‘blue-blooded family’가 유서 깊은 귀족 출신 가문을 가리키고 우리말로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성서시대에는 자주색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 당시 전체를 자주색으로 염색한 겔옷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1억 원 가량이었으니 이만한 명품 옷도 없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재력가였을 것이다. 그녀가 상대하던 고객들 역시 상류층 1%에 속하는 VIP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한 바울에게 루디아를 선교 사역의 조력자로 붙여주셨다. 루디아는 앞으로 바울을 통해 펼쳐질 유럽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한 든든한 스폰서였다.

/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터키-그리스 신구약성경 투어: 1월26일-2월8일
이집트-이스라엘 구약성경 투어: 2월10일-2월19일
문의: 김주희 간사(010-4902-1022)

아버지학교 비전나이트

내년 1월 11일
어머니학교와 연합

두란노 아버지학교 봉사자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비전나이트가 내년 1월 11일(토) 양재 사랑홀에서 열린다. ‘첫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전나이트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아버지 학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어머니학교와 연합된 힘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특히 다른 해와 달리 두란노 어머니학교와 협력하여 함께 감사를 나누는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의 자리 가 될 것이다.

오전 11시부터 신상언 감사(낮은울

/ 조은실 기자



타리 대표의 강의와 동안교회 문화 선교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목회자 되십시오”

박태영 목사 취임 · 윤길중 목사 이임

박태영 목사가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지난 12월 11일(수) 오후 7시30분 대전 온누리 본당에서는 박태영 목사 취임, 윤길중 목사 이임예배가 있었다. 이날 운영위원회 장로들과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 및 권사 등 이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발걸음이 각지에서 모였다.

이취임예배는 ▷찬양 ▷이건재 장로의 대표기도 ▷반태효 목사의 설교 ▷이임사 ▷취임사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반태효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4-9)’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반 목사는 “교육열이 높은 대전에 차세대가 잘 세팅되어야 할 때 윤길중 목사님이 오셨다. 이제 또 다른 단계를 위해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분이 박태영 목사님이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잘 코칭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양재 캠퍼스 강남C공동체를 담당하던 박태영 목사는 취임사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노스 시카고 온누리교회로 이임하는 윤길중 목사는 “차세대를 담당하다 성인공동체를 맡으니 실수가 많았는데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참석한 성도들, 동역해왔던 교역자, 간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Acts 29의 비전을 품고 충남 대전 지역에 세워졌다. 살아있는 예배, 아웃리치, 행복한 가정이란 세 가지 가치를 표방하며 시작한 대전 온누리는 온누리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시작됐다. 창립예배를 드릴 때만



대전 온누리교회 여섯 번째 담당목사로 박태영 목사가 취임했다.

해도 예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향장비만 세팅되어 있었지만 11개월이 지났을 때 성도수가 1천여 명을 기록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대전은 그동안 첫 번째 담당목사인

라준석 목사를 비롯해 조용진, 신도배, 안광복, 윤길중 목사가 담당해왔다. 지난 9월 1일(주일)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이임사

“부족한 자,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

눈이 와서 춥고 평일인데도 많이 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돌아보니까 조금 더 잘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차세대를 담당해 와서 그런지 성인공동체를 담당하며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는데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미안한 건 교역자님들과 간사님들입니다. 정신없이 일을 시키고 잔소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특별히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 윤길중 목사

“예수님과 성도님 사이에서 잘 섬기는 목사로”

취임사

윤길중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뒤를 이어 귀한 대전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반태효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저의 역할은 주님이 성도님들께 잘 다가가시도록 중간에서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교역자들과 교회의 많은 헌신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박태영 목사

인천

“‘갈렙의 정신’을 본받은 목회자로 우뚝 서십시오!”



지난 주일(12월 8일) 인천 온누리 이·취임예배를 위해 이재훈 담임목사, 장로 리더십, 관악금천공동체, 주차사역 등에서 참여해 축복했다.

인천 온누리의 발자취

인천은 1885년 4월 5일, 미국 북 감리회의 아펜젤러 부부와 북 장로회의 언더우드가 첫 발을

내디디며 한국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역이다.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황금어장 같은 인천에서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며 사도행전

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인천 온누리교회. 인천을 통해 다시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한국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바라며, ‘성령의 물결 넘치는 교회’로 부흥한 인천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2006년 당시 단 하나의 큐티방이 없는 인천에서 은혜가 갈급한 성도들이 오래 전부터 인천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힌 것이다. 초창기 23명이 모여 교회 창립을 위한 기도모임을 하고, 2006년 4월 30일 ‘새로 오시는 분이 주인 되도록 섬기는 비전교회’를 슬로건으로, 50여 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취임예배

지난 주일(12월 8일) 오후 2시40분 인천 온누리 본당에서 인천 온누리 담당목사이·취임예배가 열렸다. 지난 3년 동안 인천 온누리 담당목

사로 영혼들을 돌보며 사역한 이준호 목사에게서 부르신 그 자리로 파송됨을 모두가 기뻐하며 새로 인천 온누리의 목자가 된 서경남 목사를 환영했다.

이날 ‘갈렙의 신앙(수 14:6-14)’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갈렙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또한 여호수아의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협력자가 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땅을 얻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많은 수고와 역경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땅을 선택하는 희생의 믿음이 있었다.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힘든 것, 피하려고 하는 것을 자진해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정신이다. 서경남 목사님과 이준호 목사님이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갈렙의 정신’을 본받아 사역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이임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르심의 자리로”

‘3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상을 항상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목사님이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는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경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천 온누리 성도들과 다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사역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이준호 목사

“만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취임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먼저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천 온누리 성도들은 멋진 이준호 목사님을 통해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편지의 바통을 이어 받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인천 온누리 공동체와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서경남 목사

부 천

Christmas For you,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50명 전도대상자 참석, 30명 결신

크리스마스(Christmas)는 예수님(Christ)+예배(Mas)의 합성어다. 한 마디로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는 '예수님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인사다.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부천 여성사역 'Christmas For you' 전도집회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문을 열었다. 이날 본당 앞에 10여 개의 원형 테이블에는 초청자와 전도대상자가 앉아 편안한 분위기로 집회에 참석했으며, 부천 온누리 성도들은 본당의자에 앉아 전도대상자들을 환영했다.

챔버팀의 크리스마스 메들리 연주를 시작으로, 권오항 목사(부천 여성사역)의 환영 메시지, 찬양 등이 이어졌다.

특히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CCM 가수 나무엔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크리스

마스송을 불러 숨죽인 채 듣고 있던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이곳에 온 참석자들에게 '예수님과 만남'을 적극 추천하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불렀다. 이어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형제가 '내 마음 다해', 'The first Noel'을 연주하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날 '특별한 만남(요 4:13-15)'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기원 목사(부천 온누리교회)는 부모·친구·배우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생은 매번 만남의 연속이지만 모든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길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외롭고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다. 외로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수는 예수님이시다. 생수 되신 예수



부천 여성사역에서 주관한 'Christmas For you' 집회에 50명의 전도대상자가 참석해 30명이 결신했다.

님께 나아가서 모든 갈증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특순으로 섬긴 CCM 가수 나무엔,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형제, 이기원 목사가 각각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이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이 이번 크리스마스 전도집회에서 이뤄지기를 소망했다. 예배를 마친 후 각자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눴다.

한편 이번 전도집회에는 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명의 전도대상자

중 30명이 결신했다.

내년 1월 새가족반에서 전도집회 결신자들과 함께 '새가족 후속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인/터/뷰



“집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전도했어요!”

부천 온누리교회에 나온 지는 12주 되었습니다. 교회자체가 따뜻하고 집회분위기와 교제가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직원들 중에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떨리기도 하고 자리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초청받은 직장동료들이 이 집회를 통해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서은주 자매

“남편과 자녀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수요예배에 온 적이 있었는데 직장 일로 인해 너무 바빠서 수요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수요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남편과 자녀도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서현주 자매

“따뜻한 분위기로 인해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은데 여기 오자마자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서 너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런 따뜻한 분위기로 인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좋고, 성도들도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워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근애 자매

인 천

“예수님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전합니다!”

여성사역, Christmas For you 전도집회

지난 12월 11일, '크리스마스(Christmas)'의 주 최되시는 예수님을 선물하기 위해 첫 문을 연 인천 여성사역 'Christmas For you' 전도집회에 총 112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도집회는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에 14명의 전도대상자가 초청되었다.

주은정 자매의 찬양 인도로 'Christmas For you' 전도집회의 문이 열렸다. 특순시간에는 수요여성찬양팀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를 부르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가 '이런 사

랑 이런 기대(호 3:1-3)'를 주제로 영화설교를 했다. 하목사는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며,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신뢰와 사랑이 자아정체성의 회복으로 감동을 준 이 영화의 스토리보다 더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영화설교를 통해 참석한 성도와 전도대상자들은 "한 사람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회복한 것을 보며, 마음에 '쿵'하는 울림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새로 온 전도대상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며, 결신카드가 들어 있는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했다. 결신카드 작성 후 예배를 마치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



인천 여성사역에서 처음으로 연 'Christmas For you' 전도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다.

한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커피와 쿠키를 먹으며, 진지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전도집회에는 14명의 전도대상자

가 참석했으며, 3명이 결신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임산부 수술 의료

더 멋진 마을(Better Village) 위해 피해지역 인근 섬 입양



봉사 · 복구, 구호품 전달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Iloilo)지역에 파견된 온누리 구호팀이 열흘간의 구호활동을 마치고 입국했다. 온누리 구호팀은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한복판에서 의료봉사, 복구, 구호품을 전달하며 구슬땀 흘렸다.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산모 수술과 더 멋진 마을 조성을 위해 섬을 입양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결과를 정리했다.



온누리 긴급구호팀 구호 활동 내용

누가

CMN 소속 의료사역팀 11명(의사 4명, 간호사 4명, 약사 1명 지원 2명) /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6명 / NGO 더 멋진 세상 4명 / 영상팀 1명

언제

2013년 12월 4~13일

어디서 · 무엇을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 지역

의료사역 4개 지역

▶ 12월 5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279명

▶ 12월 6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133명

▶ 12월 7일 Town: San Dionisio, Barangay: Agdaliran 222명

▶ 12월 8일 Town: Ajuy, Barangay: Pantalan, Stio: Binongan-an 120명

▶ 12월 9일 Town: Tapaz 220명

■ 복구 · 구호품 전달

▶ 지역: 12개 지역 구호품 2000세트

(세트 당 쌀 10kg, 칫솔 10개, 치약2개, 비누3개, 세탁비누, 통조림 3개, 라면4개, 과자, 사탕, 여성용품 등)

▶ 12월 5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구호품 230개, 가정상비약 300세트, 의료사역 지원, 도로 정비

▶ 12월 6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의료사역 지원, 도로 정비.

▶ 12월 7일 Town: San Dionisio, Barangay: Agdaliran 구호품 300개, 가정상비약 300개 세트, 의료사역 지원

▶ 12월 8일 Town: Ajuy, Barangay: Pantalan, Binongan-an

구호품 50개, 가정상비약 50세트, 본죽 1박스, 의료사역 지원.

▶ 12월 9일 Town: Tapaz 구호품 370개, 가정상비약 300세트, 교회 분당 장판 교체, 의료사역 지원

▶ 12월 10일 Barotac Viejo 구호품 220개 / Mangorocoro 구호품 70개

▶ 12월 11일 Roxas 인근 Capis 산간 마을 구호품 300

개, 북쪽 항구마을 Carles 구호품 200개, Barotac Viejo 구호품 100개, Purok 섬 구호품 50개, 본죽 1박스, To-ong 섬 구호품 100개

▶ 12월 12일 Afentaba 산간마을 구호품 40개 나눔. 태양열 전구 세트 40개, 본죽 1박스

어떻게

■ 의료 사역

▶ 진료환자: 974명

▶ 진료내용: 근육통, 기침감기, 열, 고혈압, 피부병 등

▶ 지원액: 1,500만원

■ 임산부 수술

▶ 이름: Flor Ortiz(여, 43세)

▶ 병명: 자궁외 임신 및 자궁암 1기

▶ 진행상황: Iloilo에서 1차 수술(6일) 후 약물치료 중

■ 구호 활동

▶ 지원액: 5,500만원

▶ 12개 지역 구호품 2000세트 전달

■ 초등학교 건물 복구

▶ 지역: San Dionisio 초등학교

▶ 내용: 교무실, 교실 4개동이 있는 본관 건물의 지붕 공사와 교실 천정 작업

▶ 공사 기간: 2013년 12월 16일부터 한 달 이내.

▶ 예산: 1,800만원 지원

■ 섬 마을 입양

▶ 지명: Binongan-an 섬마을,

▶ 위치: Town: Ajuy, Barangay: Pantalan, Purok: Binongan-an

▶ 주택 피해: 50가구 중 49채 파손

▶ 선박 피해: 1척 파손, 나머지는 상태 좋음.

▶ 인구: 약 300명

▶ 어린이: 약 100명

▶ 예산: \$30,000 지원 예정

■ 향후 계획

▶ 1단계 사업: 파괴된 주택을 우선 새로 건축.

▶ 2단계 사업: 비전센터 건립.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비전센터를 함께 세움.

▶ 3단계 사업: 위생 환경개선 식수, 생활환경 개선

우리 공동체 **최고!** '브릿지33+공동체'

지난주 '하모니 공동체 1부 챔버순'의 감사 고백에 이어, 이번엔 '브릿지33+공동체' 은혜의 소식을 담았다. 올해 브릿지33+공동체의 가장 큰 감사는 예배 처소와 시간이 변경된 것이다. 6년 동안 토요일예배로 드리다가 신축된 양재 강의동 하용조기념채플실에서 주일예배가 시작되었다.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음향 장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다. / 조은실 기자

더 깊은 영성으로의 초대

오는 22일, Free Zone 전도집회



예배 회복과 섬김



이수준 형제

“젊을 때부터 오랜 기간 섬겼던 선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니 갈 곳이 없었어요. 30대 중반이라 들어갈 곳도 애매하고... 소개받고 온 브릿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올해부터는 새순 순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2011년에 공동체에 들어와 지금은 새순 순장을 맡고 있는 이수준 형제. 그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선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너무 지쳐 선교회에서 나와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 공동체 적응이 어려웠다. 4-5년을 인터넷 예배로만 드리다가 혼자 예배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위의 소개를 받아 브릿지 공동체로 오게 됐다.

선교회에서 나왔을 때 주위에 남은 사람이라곤 부모님밖에 없었는데, 브릿지에 와서 많은 동기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믿음이 추락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점차 회복되어 갔다. 예배가 회복되니 교회 생활도 즐거워졌다.

새순 순장을 결단했고, 섬기면서 더 많이 회복됐다. 로봇을 전공한 그는 이번 브릿지 전도집회에서 참석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로봇으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동기는 신앙생활의 힘!



박정롱 형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초신자 박정롱 형제. 작년에 브릿지에 오면서 믿음생활을 시작했다. 직장과 집만 오가며 의미 없이 살아오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갔다. 그는 올해 세례를 받았다.

지금 중보기도팀과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의 제단도 쌓고 있다. 또 등산팀의 총무를 맡아 지체들의 체력관리에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그를 보며 주위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가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큰 부분은 동갑네기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와는 교회에서의 동갑 친구들의 만남은 신앙생활의 힘이 되었다. 브릿지에서는 다량방별로 순이 나누어져 있지만, 동기별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다. 동기별로 멘토들이 정해져 있어 그들에게 삶의 조언을 듣는 것 또한 큰 힘이 된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번 전도집회에서 친구를 전도하려고 한다.

청년부 경험이 씨앗 되어



문유영 자매

“30대 초반까지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사역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브릿지에 와서 열매를 맺고 있고 있어요”

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 출신인 문유영 자매. 그는 강동 온누리 청년부에 있다가 다시 양재로 오게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다. 제약된 것들이 많아 공동체 없이 한동안 예배만 드렸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되자 다시금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브릿지를 찾아왔다. 청년부 때 사역하면서 상처 받고 회복된 과정들이 브릿지에서 와서 열매로 맺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관계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가 브릿지에 온 것을 감사한 사건이 있었다. 친동생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진실로 기도해줄 사람들을 찾아보니 순장교육을 함께 받으며 마음을 나눴던 12명의 브릿지 지체들이 생각났고, 메시지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부탁받은 모든 지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메시지로 전화로 기도를 해주었고, 위로해 주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도 다른 이들의 기도부탁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Free Zone’ 전도집회에 초대합니다

그들이 말한 감사의 고백들 외에도 올해 10여 쌍의 부부가 탄생했고, 3명이 사역자로 세워져 사역지로 나가게 되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일(22일)은 주일예배를 전도집회로 진행한다.

33세에서 44세 싱글 형제, 자매들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15:9)’라는 주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포스터 제작, 홍보영상 제작, 특순 등 모든 집회를 준비한 브릿지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지체들을 기다린다.

우리 브릿지33+공동체는요!



“33세-44세 싱글들이 모여 있는 성인공동체로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공동체, 리더의 리더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 양재 하용조기념채플실에서 예배가 열립니다.”

/ 김현실 목사

용산공동체와 더 멋진 세상이 함께한 ‘사랑의 후원’

2년간 아웃리치로 맺은 인연, 사랑의 결실 맺어

나랑토야 자매는 남편, 일행 10명과 함께 지난 2011년 6월 28일 ‘에르드 넌트시’에서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마치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던 중 남편이 운전한 차가 교통사고로 전복하여 탑승자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났었다. 그 당시 운전을 했던 남편은 과실치사로 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나랑토야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로 방문한 용산공동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나랑토야 집사는 허벅지 대퇴부가 여러 조각으로 골절되어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봉합이 잘 되지 않고 2차 수술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몽골에서는 치료 불가능으로 판단되어졌다. 함께한 의료선교회 소속 의사들이 현지에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현지 치료가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더멋진세상’의 지원을 힘입어 초청, 치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오호중 집사(용산공동체 선교팀장)는 나랑토야 자매와 용산공동체, 더멋진세상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해는 지난해 의료진이 그대로 참석한 가운데 17명이 사르하드 은혜교회를 방문했어

요. 몽골 의료진이 열악했던 터라 나랑토야 자매를 그 당시의 상태로 놔두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은 끝에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특히 ‘더멋진세상’ 김광동 장로(용산공동체)가 무료병원 및 1차 수술비와 모든 입국절차, 비자관계를 ‘더멋진세상’에서 부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2차 수술은 공동체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동체 후원모금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또한 용산공동체에서 지체들에게 매번 순배와 다락방 모임에서 환우들을 돕자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 많은 헌금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담은 사랑의 후원이 이뤄졌다. 그렇게 해서 2차 수술의 필요한 모든 재정이 모금액으로 충당이 되었다.

지난 11월 14일(목),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초청한 몽골 현지인 나랑토야(49, 여) 성도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1차 수술은 분당 순병원(김병순 장로)에서 진행되었다. 2차 수술은 주정형외과(주성대 장로)에서 용산공동체 성도들이 모금하여 마련했다. 나랑토야 집사는 1, 2차



수술 및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오는 12월 28일(토) 출국한다.

지난 12월 10일(화)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된 용산공동체모임에 아웃리치로 2년 동안 깊은 인연을 맺은 나랑토야 성도가 참석해 은혜를 나눴다.

“처음에 저희 현지 교회에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단기팀이 와서 인연이 닿아 진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도와주신 분들, 공항에서부터 환영해주신 여러 교회 성도님들, 온누

리교회와 용산공동체, 후원해주신 ‘더멋진세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몽골 아웃리치를 섬긴 용산공동체는 몽골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지속적으로 섬기며 기도로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나랑토야 자매가 1-2년 후에는 현재 철심을 박아놓은 것을 빼야 하기 때문에 몽골에서 못 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대청 ‘사랑꽃나눔’ 사업의 첫 스타트를 끊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윈터캠프에 49가정이 참석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다.

대청 윈터캠프

‘다문화가정’과 함께 나는 따뜻한 이웃사랑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소외된 다문화가정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윈터캠프’가 지난 12월 7-8일 1박2일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양지파 인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윈터캠프’는 이사회에서 아직도 소외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49가정(135명)과 함께 하는 스키캠프 및 부모강의, 매직버블쇼 등으로 진행되었다. 캠프에는 32명의 봉사자와 5명

의 교역자가 참석해 다양한 게임 및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청연합본부는 2주간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 참석하는 49가정의 다문화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며 기쁨의 교제를 나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윈터캠프를 다녀와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이번 캠프에서 스키를 처음 타서 겁이 났지만 강사님이 잘 가르쳐준 탓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높은 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며 스키를 곧잘 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를 붙여서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이 계속 스키를 타고 싶다며 스키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목사님께서 매직쇼와 버블쇼를 준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신나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다문화가정 어머님들에게 발을 씻겨드리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에서 찍었던 가족사진을 예쁜 액자에 담아 주시고, 5만원의 상품권과 USB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 짱위랜(다문화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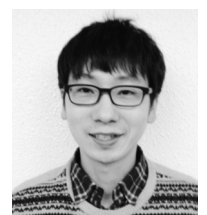
“소중한 추억 만든 시간”

윈터캠프에서 처음으로 타 보는 스키에 즐거워하는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저 또한 그 순간만큼은 무거웠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해근 목사님의 말씀은 그동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일반가정과 다르다는 그림자를 지워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감동을 받았던 세족식 시간에는 그동안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한 아내의 발을 닦아 주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온누리교회 대청청년부와 다문화센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구충원(다문화가정)

“눈물과 함께 회복을 선물 받은 감동의 세족식”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한 ‘세족식’은 감동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밤새 79개의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차가울까 봐 봉사자들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가며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발을 씻김 받은 분에게 눈물과 함께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신 봉사자들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눈물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스키를 처음 탔는데 안 넘어졌다고 자랑하는 아이, 함께 풍선 가지고 놀아줬더니 행복한 표정을 짓던 아이, 봉사자의 얼굴을 손으로 비비고 만지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이들이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게 비추길 기도합니다.



윤일중 형제
(여호수아공동체)

교사대학

차세대 '교사대학' 개강

교사론 강의 및 소개 ... 신입교사 필참

차세대 교사를 위한 신입교사대학이 오늘 (15일)부터 시작된다. 서빙고는 오늘 오전 9시 서빙고 신관 202호에서 진행된다. 양재는 오전 11시30분 화평홀, 도곡은 오전 10시30분 꿈아이홀이다.

차세대 교사를 지원한 성도들은 신입교사대학에 필참이다. 신입교사대학 교육 과정은 ▷신입교사 OT ▷면접(영역별) ▷부서 배치 ▷Jump to Jesus 순서대로다. 신입교사 OT에서는 차세대 교사론에 대한 강의와 영역별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이 열리며, 부서 배치 후 진행되는 Jump to Jesus는 12월 15일부터 1월 5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된다. 내용은 예수님처럼 제자삼기, 예수님과 마주보기, 예수님과 시작하기, 예수님처럼 가르치기 등으로 노회태 목사님과 각 부서 리더십들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차세대 본부에서는 교사캐스팅에 지원하지 못한 교사 지망생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문의: 서빙고 차세대(3215-3525)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신입교사대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교사들을 초청해 열린 '2012 교사 송년의 밤'.

신입교사대학 (12/15일 과정)

	신입교사 OT(온누리 차세대 교사론)	각 영역 소개, 면접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서빙고	09:00, 202호 노회태 목사	09:40, 201호 김정순 목사	09:40, 202호 석승호 목사	09:40, 301호 박승재 목사
양재	11:30, 화평홀 노회태 목사	12:10, QT나눔방 조병홍 목사	12:10, 화평홀 김도윤 목사	12:10, 비전홀 박성은 목사
도곡	10:30, 꿈아이홀 김승완 목사			

세품아

양재, 세계를 품은 아이들 종강

1년 과정, 학생 10명 수료

양재 캠퍼스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하 세품아) 과정이 14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30일 양재 비전홀A에서 종강예배를 드렸다. 이번 과정에는 10명이 수료했다.

세품아는 봄학기 14주, 가을학기 14주로 1년 과정

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선교와 성경을 통해 세계를 품은 아이들로 훈련하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다음은 세품아를 졸업한 학생의 간증을 실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간 증 / 스리랑카 아웃리치

“참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이해인
(양재 세품아)

나는 세품아를 시작하기 전에 세품이라는 이름을 듣고 “어? 세계를 품은 아이들? 이게 뭐지? 이상하네?”라고 생각했다. 세품아에 접수를 하고, 비전홀에서 면접이 끝난 며칠 후, 내가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다. 기뻐했다. 세품아 두 번째 모임에서는 함께 캠프를 갔다. 사실 캠프를 가기도 걱정이 많았다.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계속 하다보니 예배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세품아 과정을 밟아오면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 훈련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나와 친구들이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 남아서 연습했던 일, 예배시간에 떠들어서 혼나게 되었던 일 등 모두가 소중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우리가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우리 세품아 친구들은 워십댄스와 인형극 등 열심히 연습을 했고, 엄마들은 아웃리치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카프를 팔았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나는 스리랑카 아웃리치 기간이 중간고사 일정과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시험을 치를 경우, 내가 본 시험에 70%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가족이었다. 가족들은 다른 걱정은 뒤로하고 나에게 스리랑카에 가라고 격려해주었다. 많은 친구 엄마들의 걱정 속에 나는 스리랑카로 떠났다.

덥고 습하지만 행복했던 아웃리치

스리랑카는 생각보다 무척 더웠고 습했다. 공항 출구 쪽에는 아주 큰 불상이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함께 말이다. 스리랑카에 도착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유보안(안녕하세요?)” 등 아주 기초적인 말뿐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가 “아유보안”이라고 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유보안”이라고 대답해주었다.

우리의 사역은 양로원과 고아원, 유치원, 학교, 그리고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



아있는 빈민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공연을 보며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는 색종이 접기를 해서 직접 비행기를 만들고 서로를 향해 날려 보냈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은 색종이를 처음 보아서인지 그 종이 비행기가 가까워서 날리지도 못하고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사역 중에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다. 우리가 인형극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노래가 끊겨버렸다. 우리는 직접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며 인형극을

끝까지 마쳤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기특하다고 칭찬해주었다. 아웃리치라고 하면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쇼핑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식물원에도 갔고 삼륜차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새 정이 든 스리랑카 사람들과 헤어지려니 서로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비록 그곳의 날씨는 덥고 습했지만 난 참 행복했다. 나와 같은 아이도 선교를 다녀왔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비행기에서 스리랑카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입술이 아름답다!”

17기 온누리 전도폭발훈련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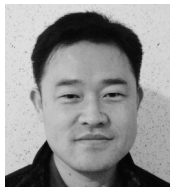
제 17기 온누리 전도폭발훈련(이하 전도폭발)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 주간반과 저녁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전도폭발은 전도결과 결신율 51%, 54%의 결과를 내며 전도의 여정을 축복가운데 마쳤다. 전도폭발의 훈련과정은 1~4

단계가 있다. 각 단계별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간증을 통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또한 이를 통해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 귀한지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1단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자”



윤정노

선교사 신분으로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배우는 것에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선교사이니 죽기 살기로 전도폭발훈련을 받지만 많은 다른 성도님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 강의 듣고 전도실습하고 또 다시 생활전선으로 황급히 돌아가는 분,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열심히 훈련받는 모습, 바쁜 일터에서 시간을 내어 훈련을 받고 섬기는 등 우리

조와 그룹의 지체들을 보며 많은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도현장에서 나는 선교사니까 잘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막상 다쳐보니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하, 외워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절실히 했습니다. “그래! 죽을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야,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이야.”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저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로 소망합니다.

2단계

“배운 바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전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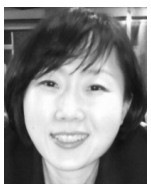
강희주

노방전도가 있던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주변에서 복음을 들을 대상자들을 만나 3명의 조원이 팀워크로 전도폭발 전문을 전했고 모든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분 중 한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당시 실직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전도자였던 우리에게 취업을 위한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별 발표시 앞에서 공개적인 기도부탁도 했었는데 2달동안 취업이 안돼서 힘들어하던 그 분은 바로 그 주 일요일에 취업이 되는 응답을 경험하기도 해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가고 싶어하면서도 실제로는 뒷걸음쳤던 한 지인이 있었는데 그가 조만간 자녀의 학업을 위해 중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전

도하지 못하면 영영 전도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명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전폭 조원들만이 아니라 중보기도자 분들께 2주 후 약속을 잡고 반드시 전도할 기회를 얻게 해 달라고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그 지인은 강력한 중보기도의 위력으로 흔쾌히 복음을 시간을 냈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단계 전폭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항상 전도할 기회를 얻도록 깨어 기도할 것, 일상을 전도의 기회로 여길 것, 복음을 들을 대상자들을 선정한 후에는 그들을 기도로 계속 품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중보기도를 적극 부탁해야 할 것 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3단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선경

예전에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대상자에게 다가갔던 것이 3단계에 올라와서의 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상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다가가니 전도대상자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셨고 놀라운 결신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천국 갈 확신에 대한 질문에 가고 싶으나 확신이 없다고 대답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자매님은 진지한 얼굴로 종교가 달라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천국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고 함께 결신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본인 가족에게 복

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일본인 83세의 할머니와 23살의 손녀를 집으로 초대해 구절판 등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성경말씀이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일어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럽고 머리가 아파왔지만 이를 계획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니 도구로 써주시겠지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듣고 놀랍게도 그들은 결신을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단계

“전도폭발 통해 복음을 향한 열정 품게 되었습니다”



조성란

3단계를 마치고 4단계를 들어간 2011년 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남편의 문제로 우울증을 겪고 4단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우울증은 지속됐고 2012년 7월경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울증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킬까? 그때 성령의 음성은 “팔아! 네가 만날 우울증 환자는 다 크리스천이야 니란다”고 했습니다. 회복 후 제 주변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제게 붙여주

셨고 2013년이 되면서 전폭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강력하게 주셔서 올해 9월에 다시 4단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를 공부하며 한 과 한 과를 지날 때마다 결혼 후 제가 받은 상처를 다시 치유하시고 성숙한 조원들과 그룹을 통해 더 많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울의 과정 가운데 저를 더 견고케 하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고난의 시간을 같이 중보해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